



차일목

차일목 - 서재응 KIA 배터리 총전

김기태 감독 주말 반전 카드...루키 이은총·김호령 투입 '스피드 전략'도



KIA 타이거즈가 초반 기싸움을 위한 전방 위적인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 열린 21일 챔피언스필드에는 올 시즌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선수들이 있었다. 포수 차일목, 투수 서재응, 외야수 이은총과 김호령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들의 등장 배경에는 KIA의 전방 위적인 전략이 있었다.

차일목은 1군 등장과 함께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시범경기에서 허벅지를 다치며 재활을 했던 차일목은 이날 바로 마스크를 쓰고 선발 양현종과 오랜만에 배터리를 구성, 자신의 2015시즌을 출발했다.

전날 KIA는 외야수 이종환을 빼면서 엔트리 한 자리를 비워줬다. 외야수가 아닌 차일목이 등록되면서 KIA는 일단 세 명의 포수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됐다. 부상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차일목이 부상에서 회복하기는 했지만 실전에서 흑시 몸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를 위해 기존 멤버인 이성우와 이흥구를 그대로 두었다. 엔트리가 말소되면 10일 이후 재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상변수를 고려해 포수진을 운영할 뒤, 정예 멤버를 고르겠다는 계산이다.

웬스텝 부상에서 재활을 했던 서재응은 2군에서 착실하게 선발준비를 끝내면서 이날 1군 선수단에 합류했

다. 주말 마운드 재구성을 위한 카드다. KIA 김기태 감독은 21일 주중 경기의 불펜 운영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제를 밝힌 뒤, 주말 두산과의 원정 3연전에 서재응을 선발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주 1군 첫 출격에서 최고 155km의 직구를 뿌리며 2.2이닝 6K를 기록한 한승혁과 앞선 등판에서 조기 강판되기는 했지만 자신있는 피칭을 하고 있는 루키 문경찬도 주말 3연전 선발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총과 김호령에게는 가슴 설렌 첫 1군 방문. 코칭스태프에게는 시즌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였다. 이은총은 2014 육성선수로 입단한 2년차 선수이고 김호령은 올 시즌 대졸신인이다. 김기태 감독은 이들을 1군으로 불러들여 훈련을 하도록 했다. 1군 선수단에 스피드가 부족한 만큼 발 빠른 두 선수를 코칭스태프가 직접 살펴 보면서 앞으로의 시즌 운영에 대한 전략을 짜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라인업에서 빠졌던 강한울도 속 쓰름게 그라운드에서 재등장했다. 강한울은 지난 18일 경기가 끝난 뒤 함평행을 지시 받았다. 엔트리 말소 없는 2군 행이었다. 강한울에게 과감하고 적극적인 주루를 주문했던 김기태 감독은 이에 맞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자 '충격 요법'을 사용하며 변화를 유도한 것이다.

새 선수들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분위기를 전환한 KIA가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특·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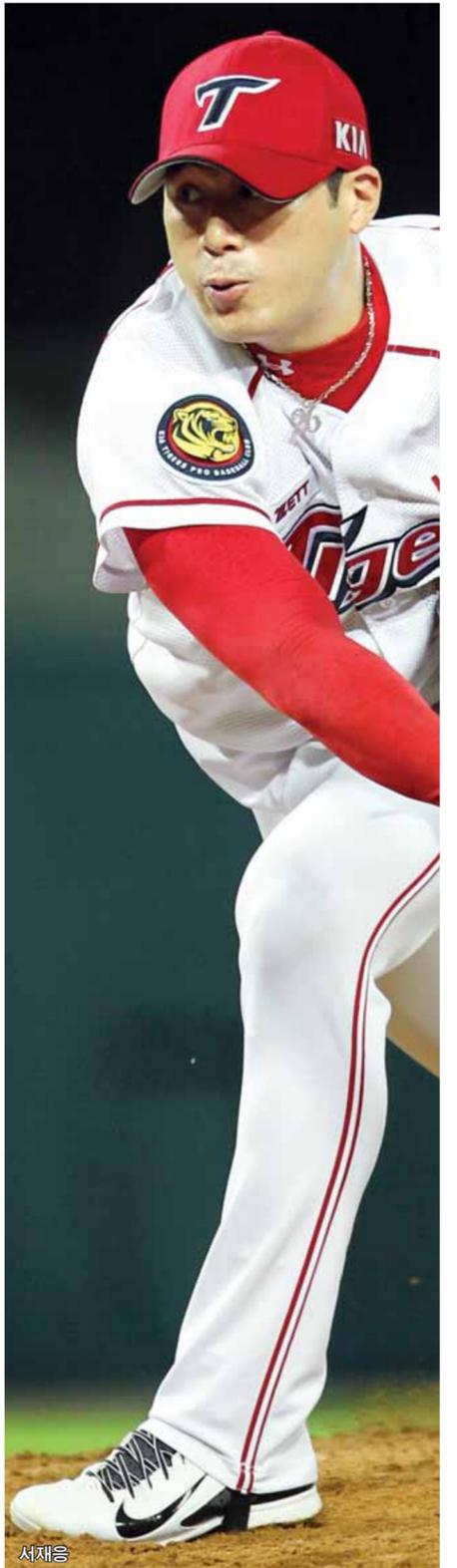
홍세완 코치 "날씨도 좋는데 선수들도 좋았으면"

▲"날씨도 좋는데 우리 애들도 좋았으면" = 홍세완 코치의 간절한 바람이자 하소연이었다. 선수들이 외야에서 느긋하게 몸을 풀고 있던 시간, 배팅 박스에서는 두 선수의 특다가 진행이 됐다. 깊은 부진에 빠진 4번 타자 나지완과 6번 타자 이범호가 일찍 방망이를 들고 땅을 흘렸다. 타선의 중심인 두 선수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팀 타선도 덩달아 침체된 상황. "좋다, 시험 때도 이렇게 치자"며 두 선수를 독려했던 홍 코치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날씨도 좋는데 우리 애들도 (타격이) 좋았으면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밝혔다. 김기태 감독은 "떨어붙어겠다"며 이날 나지완과 이범호를 원래 자리인 4번과 6번 자리에 그대로 기용했다.

▲"맞았지만 불넷은 없었으니까" = 공격적인 피칭을 강조하는 김기태 감독이다. 루키 문경찬의 선발 재기용에

도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 김 감독은 21일 문경찬을 두산과의 주말 3연전에 선발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경찬은 최근 선발 두 경기에서 각각 4.2이닝 4실점, 2이닝 5실점을 기록했다. 두 차례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김 감독은 불넷없이 자신감 있는 피칭을 하는 점을 높게 사, 자신감 의사를 밝혔다.

▲"제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죠" = 어느 자리든 그라운드에서 뛰는 자체가 행복하다는 최용규다. 앞선 두 경기에서 김주찬을 대신해 토타서 역할을 했던 최용규는 21일 2번 타자로 자리했다. 7번 9번 타자로도 나오는 등 가장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타순을 오가고 있는 상황. "테이블 세터의 경우 타석도 더 많이 들어서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용규는 "제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죠"라고 답을 했다. /김여울기자 wool@



서재응

이청용, 팀 복귀 임박

첫 훈련 소화... "4~5 경기 뛰기 희망"

축구 국가대표 이청용(26·크리스탈 팰리스)이 조만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청용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사우스 런던'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주 처음 훈련을 완전 소화했다"며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상은 걱정하지 않으며 아무런 통증도 느끼고 있지 않다"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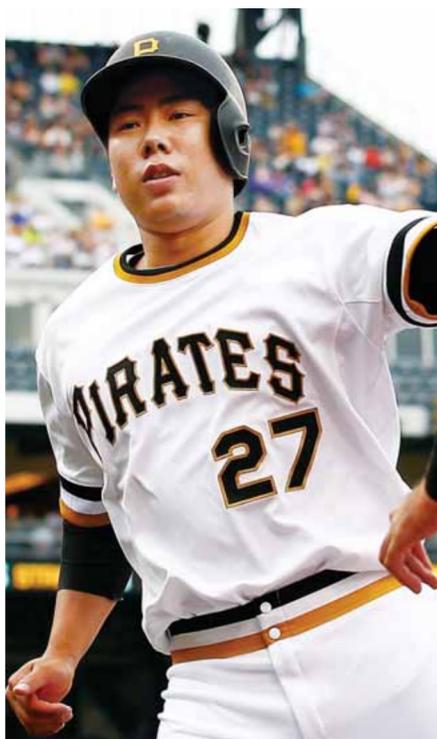
이어 "팀의 마지막 4~5게임에서 뛸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곧 복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청용은 21세 이하(U-21)팀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첼턴 U-21 팀과의 경기에 출전할 계획이다.

그는 "1군 경기를 뛰기 전에 U-21에서 뛸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청용은 지난 1월 아시안컵 대회 오만전에서 상대 수비수의 강한 태클로 오른쪽 정강이뼈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겨울 이적시장에서 첼피언십(2부 리그) 소속 볼턴을 떠나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한 후 아직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 ML 첫 실책

시카고전 선발 출전...3타수 무안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8일 만에 선발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실책까지 범했다. 강정호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8번타자-유격수로 선발출전했다.

주전 유격수 조디 머서가 전날 번트를 시도하다 투수의 공에 가슴을 맞아 통증을 느끼면서 강정호에게 13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8일, 7경기 만에 선발 출전기회가 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안타는 나오지 않았다. 2회말 1사 후 첫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시카고 선발 제이크 아리에타의 시속 140km짜리 고속 슬라이더에 속아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강정호의 시즌 세 번째 삼진이다.

강정호는 5회말 아리에타의 시속 153km짜리 직구를 공략했으나 유격수 땅볼에 그쳤고, 7회 2사 1루에서도 아리에타의 150km 상강 패스트볼에 놀려 땅볼로 물러났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100에서 0.077(13타수 1안타)로 더 떨어졌다. 수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선보였지만, 실책 한 개가 아쉬웠다.

4회초 무사 1루, 스타린 카스트로의 3루수 쪽으로 치우친 땅볼을 잡은 강정호는 무리해서 2루로 송구하다 실책을 범했다. 이날 피츠버그는 컵스에 2-5로 패했다.

/연합뉴스